

사슴 봄철 건강관리

사슴은 소나 양과같이 4개의 위를 가진 반추동물에 속하나 생리적 기능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열 발생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타이록신”이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체내 대사를 조절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겨울철에는 영양이 풍부한 사료가 부족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활동상태도 적어지며 적은 열량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리적 기능이 조절된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에는 “타이록신”이 활성화 되므로 운동량이 많아지며 사료의 섭취량도 많아지고 식욕도 왕성해진다. 더구나 봄철은 숫사슴은 뿔을 자라 나오기 위한 예비단계이거나 자라 나오는 시기이며 암사슴은 임신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질의 영양을 필요로하며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때는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저장된 건초의 양도 떨어지고 건초의 질도 나빠지는 시기일 뿐 아니라 겨울철에 축적된 영양을 많이 소모하였으므로 영양상태가 불량해지거나 심지어는 피모가 빠지거나 칼로 베어 놓은 것 과 같이 부스러져 나가는 탈모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조사료인 건초의 부족현상으로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농장에서는 탄수화물 사료가 완전히 대사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결국으로는 영양상태가 좋은 것 같지만 오랫동안 이

러한 사양방법에 의존하다보면 수명의 단축을 가져 올 뿐아니라 위 무력증으로 인한 식체 현상과 탄수화물 과식증과 같은 소화기성 질병을 유발하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은 1 : 3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급여비율이 맞지 않으면 위내의 정상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지기 쉬우며 특히 탄수화물 사료가 주성분인 농후사료를 많이 급여하게 되면 위내에는 산이 많이 생성되어 산성화(에씨도씨스) 현상이 일어나며 따라서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운동이 무력해지며 반추운동도 적어진다. 위내가 산성화되면 그람 양성균의 번식이 증가하며 유익한 세균인 “마이크로 후로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소화작용이 저하되며 심하면 장염을 유발하거나 단백질 분해과정에서 생기는 독소에 의하여 장독혈증까지 진전되기도 한다.

봄철에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은 「 급성식체 」 「 장염 」 「 장독혈증 」 「 탄수화물 중독증 」 「 영양대사 장애 」 등이며 모두 사양관리의 잘못에서 기인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① 급성식체

봄철을 맞아 식욕이 왕성한 사슴에서 많이 발생되며 주원인은 농후사료의 과식이나 요즘 큐브로 만든 알팔파를 딱딱한 상태로 다량을 채식한 후 위내에서 불어나서 복부가 팽대되고 복통을 동반하는 식체현상을 유발한 사례도 있

었다. 식체증상은 침을 흘리며 식욕을 절제하고 운동을 기피하며 우울하고 간혹 기지개를 펴는 듯이 뒷다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한다.

② 장염

소화불량 상태의 일환인 농후사료의 과식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내부 기생충감염이나,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핀 건초 등 사료를 채식시켰을 때 설사를 동반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급성 장염인 경우는 심한 설사와 함께 혈변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탈수현상으로 기력이 떨어지며 식욕을 잃고 심지어 폐사하기도 한다. 만성으로 이환되면 장기능이 떨어져서 영양흡수를 못하여 사슴이 마르고 활동력이 없으며 변에는 장점막과 점액이 탈락하여 코갈은 점액이 묻어 나온다.

③ 탄수화물 과식증

봄철을 맞아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배합사료외에 옥수수, 밀, 콩, 고구마, 감자, 도토리 등을 더 많이 급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데 원인은 위장내에 산도가 증가하여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복부는 제 1위가 충만하여 위운동이 정지되는 일종의 곡물과식증이다. 증상은 복통을 유발하고 식욕을 절제하고 행동이 둔화되며 침을 흘리고 반추동작이 없으며 제 1위를 청진해 눌러보면 물이 적류된 듯한 소리가 들린다. 배변시에는 소화않된 곡물입자가 변에서 발견되며 응급처치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위수술로 내용물을 제거하고 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④ 장독혈증

건초가 일찍 떨어지고 조사료가 부족하여 새 풀이 자라 나오기 시작할 때 풀을 뿌리채 뽑아 채식시켰을때 흙속에 잠재해 있던 혐기성균이 장내에서 번식하여 독소를 발하고 장기를 부식

시키므로 인하여 발생되며 일단 발생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급성으로 폐사하므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증상은 갑자기 식욕부진, 침을, 설사(때때 혈변을 발함), 경련 등의 증상을 나타내 24시간~72시간 내에 폐사한다.

때론 급격한 사료의 변경이나 농후사료의 지나친 급여로 인하여 위내 정상세균의 균형이 깨어지므로서 발생되기도 한다.

⑤ 영양대사 장애

사료내 영양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지 못하면 체내 대사장애를 일으켜, 영양결핍으로 인해 마르고 털이 거칠며 심하면 탈모현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사료내에 조단백질13-18% 조지방 2% 조회분 4-5% 선에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으며 뿔이 자라나오는 녹용 성장기에는 단백질을 18-20%선으로 올려주기 위하여 콩을 불려서 약간씩 공급하는 것은 무난한 방법이다. 또한 미네랄 중 칼슘은 0.45% 인은 0.35%를 사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녹용 성장중 칼슘제를 과량 투여하게 되면 녹각화가 촉진되어 빨리 녹각화되는 현상이 일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이 결핍되면 흙이나 털같은 이 물질을 먹는 증상을 나타내며 옥도의 결핍은 새끼를 사산하게 되며 망간은 뼈의 형성과 번식에 관여하여 부족시에는 새끼의 성장이 나빠진다. 코발트는 조혈작용 및 “하이드로 코바라민” 합성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필요하며 철 및 동은 헤모그로빈의 구성물질로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하며 아연의 결핍은 피부병에 걸리기 쉬우며 각질화 현상을 나타낸다. 비타민 A, D, D₃, E는 뼈의 성장, 녹용 성장, 번식에 관여하며 비타민 B의 부족은 식욕감퇴, 성장불량을 나타

내며 비타민 K는 세균에 의해 위안에서 합성되며 부족하면 혈액 응고 장애를 나타낸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질병이 영양관리의 불합리로부터 발생되며 소화기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대사장애로 파급되며 제 2차적 질병을 초래하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사료라도 소화기능이 저하되고 장에서의 흡수과정과 간장에서 저장, 해독하여 각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사슴의 건강은 물론

사슴으로부터 신선한 녹혈과 녹용의 생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金 璫 圭

본회 수의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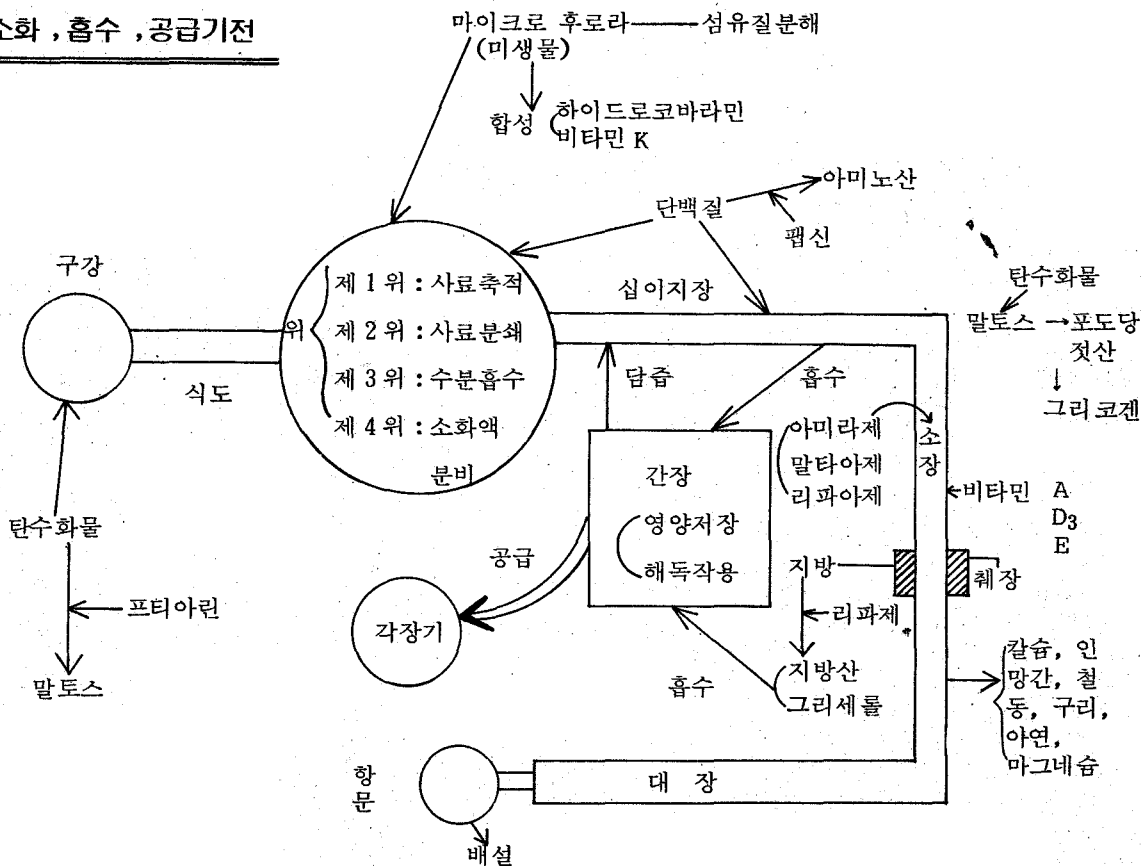
뉴질랜드 양육 연수

창경원 수의사

현 한국야생동물병원 경영

저서 : 사슴농장, 사슴사육과 관리

* 소화 , 흡수 , 공급기전



※ 참고적으로 사슴의 소화, 흡수, 영양공급 등의 과정을 그림을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